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6. 3.(목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방현하, 사무관 황영용, 주무관 최정규 • ☎ (044) 201-3549, 3558, 3559	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, 유공자 24명 포상

-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42% 인하 등 지원책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를 6월 3일 오후 2시 건설신기술 관계자 등 50여 명*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(서울 서초구 강남대로)에서 개최했다.

* 코로나-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

- ‘건설신기술의 날’은 지난 ’03년 제정된 이후,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.
-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, 지자체, 정부 산하기관에서 총 24명이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.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롯데건설(주) 김종수 상무가 수상했다.
-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신기술*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5천여 건 이상 적용되었으며, 이를 통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줄이고 품질은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.

*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09건 개발되어 신기술로 지정

-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의 엄격한 심사(기술 우수성, 경제성, 현장 적용성 등 평가)를 통해 지정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,
 - 올해에도 인증 수수료를 42% 인하(3.5백만원→2백만원)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장심사 시 스마트건설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“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건설 신기술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어, 건설산업계 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”면서,
 - “향후 건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, 건설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
황영웅 사무관(☎ 044-201-355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행사 개요

- (목적) 신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을 통해 건설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의 날 행사 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화합의 장 마련
- (일시) 2021. 6. 3.(목), 14:00~15:00
- (장소) 엘타워 5층 오르체홀(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, 양재동 소재)
- (주최)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(후원 : 국토교통부)
- (참석대상) 50명(통상 400여명, 전년도 50명 참석)
 - 국토교통부 1차관,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50명
 - * 코로나-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

□ 주요 행사내용

- 개식 및 국민의례
- 기념사(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)
- 축 사(국토교통위원회 위원)
- 유공자 포상 수여(국토교통부 1차관)
 - 정부포상 4명, 장관표창 20명 중 친수 13명(훈장1, 포장1, 대통령표창1, 국무총리표창1, 장관표창 13)
- 치 사(국토교통부 1차관)